

나를 찾아가는 학교, 미래를 만드는 학교

2020년 8,9월호

1.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등교 수업 불안감 고조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전국이 한바탕 물난리를 겪고, 전 국민의 마음을 힘들게 한 8월이다. 올해 장마는 52일이라는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의 기록을 세웠다. 수마가 핏줄이 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우려했던 코로나 19 재확산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한 학기 내내 많은 분들의 피, 땀 흘린 노력으로 교내 확진자 발생 없이, 1학기가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2학기가 시작되면 모든 학년이 매주 등교하게 될 것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 된 밥에 재가 뿌려졌다.

닷새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1천 명에 육박한다는 소식에 정말 참담한 심정이 아닐 수 없다. 8월 17일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2학기 등교 수업 계획은 또다시 수정되었다. 수도권, 경기 지역 유,초,중학교는 9월 11일까지 4주간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고,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데 이어, 3단계도 검토 중에 있다. **코로나 재확산의 매개가 된 성북구의 00교회로 인해 우리 학교 인근 지역인 성북구, 강북구의 학교들은 등교 수업이 중지되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여름 방학을 마치고, 일제히 등교하기 시작했지만, 학교 인근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확진자 현황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언제든 내 옆에서 확진자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매주 마스크 없이 등교하길 꿈은 이대로 물거품이 되는 것인지 모두가 불안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방역 수칙 지키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우리는 할 수 있다.

2020-08-18

2. 제 28회 백록기 준우승!!

8월 12일(수)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2020년 제 28회 백록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우리 학교 축구부가 당당히 준우승을 차지했다. 3년 연속 결승에 진출했고,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백록기 대회에 올해도 변함없이 좋은 결과를 기록해서 학교의 위상을 드높였다.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 19 때문에 훈련에도 제약이 많았다. 감염병, 홍수... 줄줄이 다가온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훈련하고, 경기를 치르느라 애를 쓴 축구부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2020-08-13

백록기 전국대회 경희고 실적

제26회(2018) 우승
제27회(2019) 준우승
제28회(2020) 준우승



3. 과학의 날 행사 취소, 연기

연기되었던 교내 과학의 날 행사가 드디어 개최되나 했다. 모처럼 열릴 교내 행사에 학생들의 기대는 한껏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그런 기대도 잠시, 코로나 19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아 결국 당일 아침 과학 경시대회를 제외한 오후 일정이 모두 취소되고 말았다. 이로써 과학의 날 행사는 올해 말로 기약 없는 연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바이러스 때문에 취소된 과학의 날 행사라 더욱더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코로나 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쉬움은 잠시 밀어두고, 당장 마스크부터 꼼꼼하게 챙겨 써야겠다. 오랜만에 교내 행사 현장 취재를 할 생각에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계획을 세우며 마음 설레고 있던, 교지편집,기자반 학생들도 다음을 기약하며, 코로나 19와 관련된 개인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2020-08-19

4. 코로나 19 소식

8월 13일부터 100명 이상으로 늘어난 신규 확진자수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여 광복절에는 200명을 넘어섰고, 주말을 지난 8월 24일에는 무려 280명의 신규 확진자수가 발생하였다. 경기도, 대구에 이어 수도권 역시 오늘부터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식당, 카페에서 언제 어떻게 마스크를 벗고 써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다.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아직 정점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3단계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2020-08-25

5.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라 다시 닫힌 교문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라 우리 학교는 8월 24일부터 일주일 간 전학년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학기 첫날부터 교문이 다시 닫혔다. 우리 학교는 사랑00교회와 인접해 있고, 인근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내린 어려운 결정이다. 2학기가 되면 확진자 0이 되어 전 학년이 매주 등교하고, 마스크도 벗은 채 웃을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어 교문이 닫히니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재확산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 제주를 제외한 15개 도시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국내 확진자가 2주 사이 13배나 꺾충 뒀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지금 못 막으면 3단계로의 격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휴가철 여행 계획도 연기, 취소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과 전 교직원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닥치니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짜증도 나고, 화도 나지만 우선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한 뒤 책상 앞에 앉아 이번 한 주를 집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고, 온라인 수업에 집중함과 동시에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며, 코로나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다.

2020-08-24

6.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1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하루 사이 248명 늘어난 1만 9947명이다.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 수는 25일 280명, 26일 320명, 27일 441명, 28일 371명, 29일 323명, 30일 299명, 31일 248명을 기록했다.

2020년 8월 30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우리 학교는 3학년 학생들만 등교하기 시작했고, 9월 11일까지 1, 2학년은 원격수업을 하게 되었다. 또다시 한 치 앞도 내려다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의료계 파업은 계속되고 있고, 8월의 마지막 날도 힘겹게 지나가고 있다.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는 만큼 9월엔 상황이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 아니길 간절히 빌어본다.

2020-08-31

7. 등교 중지 기간 연장

8월 30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주일 연장에 따라 우리 학생들의 등교가 또다시 어려워졌다.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던 계획이 9월 20일로 변경되었다. 3학년 학생들은 여전히 날마다 등교하고 있지만, 그 어떤 해 보다 힘든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로 인해 수업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었음을 반영해 난이도 조정이 있을 거라는 보도가 나왔다. 각 대학에서도 논술 연기, 실기 축소 등 변경된 대입 전형 발표를 발표했다.

9월 7일 신규 확진자수는 136명으로 발표되었다. 옛날에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모임, 직장, 종교시설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다. 야간에 식당, 카페, 주점 출입이 통제되어 밤마다 한강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문제를 야기 시켰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확진자가 한강 공원 편의점을 출입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결국 오늘부터 (9/8) 여의도, 독섬, 반포 한강 공원 출입 통제가 시작된다.

2020-09-08

• 지도 • 지역별 표 • 누적 확진 원천지수 • 일별 확진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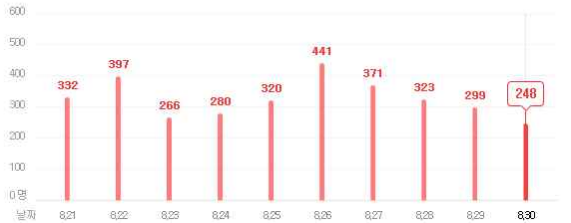


국내현황 2020.08.24. 00:00 집계 기준 ①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보건소 및 콜센터(전화 1339)에 신고하십시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Johns Hopkins CSSE

일일확진자 국내발생 233 해외유입 10

• 지도 • 지역별 표 • 누적 확진 원천지수 • 일별 확진자수



국내현황 2020.08.31. 00:00 집계 기준 ①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보건소 및 콜센터(전화 1339)에 신고하십시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Johns Hopkins CSSE

단계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	50명 미만	50명~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집합모임 행사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공공 다중시설	허용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다중시설	허용 고위험시설 운영 자체 명령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공공 기관, 기업	유연재택근무 등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 통한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기관, 기업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더블링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자료: 보건복지부

20.06.28 인지에 그래픽 기자 hokma@newsis.com

NEWSIS

8.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과 수능 모의평가, 학력평가

9월 3일부터 10일 연속 확진자 100명을 유지하고 있어, 당국의 내부 논의를 거쳐 9월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되어 적용된다. 기간은 9월 27일까지이며, 2.5단계일 때와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음식점들의 야간영업 제한 조치가 풀리고, 시간과 관계없이 배달이나 포장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도 매장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업주가 방역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 간격 유지 수칙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조건 아래 스터디 카페, 헬스클럽 등 실내 체육시설도 다시 개방할 수 있게 되었다. PC방 개방은 허용되었지만, 유흥주점, 노래방, 뷔페 등 11개 시설은 집합 금지가 유지된다.

9월 학력평가 일정 또한 변경됨에 따라 우리 학교 학사 일정 또한 또다시 수정되었다. EBBS 온라인 클래스로만 이루어지던 원격수업은 이번 주부터 MS 팀즈(Teams)를 활용하여 실시간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또한 9월 16일(수)에는 3학년만, 9월 17일(목)에는 1학년만, 9월 18일은 2학년만 등교하여 각각 학력평가를 치르게 된다.

(학사) 기존 방침대로 9월 20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고등학교는 원격수업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1/3이내 등교, 고등학교는 2/3이내 등교를 유지한다. 다만, 금일 중대본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의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9.28~10.11.)을 설정함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9월 21일 이후의 학사운영 방안은 부총리와 시도교육감과의 논의(9.14)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학원) 중대본의 거리두기 2단계 조정으로 수도권 중·소형학원(300인 미만, 총 41,567개소)은 9월 14일부터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고위험 시설인 대형학원(300인 이상, 393개소)은 9월 27일까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중·소형학원(독서실 포함) 및 교습소는 집합제한 조치 및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기존대로 9월 20일까지 대형학원 집합금지 조치, 중·소형학원 등은 집합제한 조치 및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를 지속 적용한다. 한편, 학원 내 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지자체로 구성된 '학원 방역 대응반'을 통해 수도권 중·소형 학원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대형학원에 대한 운영중단 여부 등을 점검한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등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내용 및 기한

구분	조치 내용	기한	
대형학원	고위험시설 11종에 해당하므로 집합금지	수도권	~9.27.
		비수도권	~9.20.
중소학원(독서실 포함), 교습소	집합제한 및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	수도권	~9.27.
		비수도권	~9.20.

[출처]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교육 분야 후속 조치|작성자 교육부

9. 언컨택트 입학설명회

가을이 오고 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하고 하늘도 높아졌다. 미세먼지도 좋음. 날씨만 봤을 때는 그 어떤 해 보다 아름답다. 교정에도 맨드라미꽃이 붉게 피었다. 이렇게 좋은 초가을인데, 학교엔 여전히 전교생이 등교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중학교를 포함한 타 학교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입학설명회 역시 비대면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8월 29일 온라인 설명회에 이어 9월 26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입학 설명회는 사전신청, 방역 수칙 준수하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2020-09-12 ,26

10. 본교 타이슬링 제작, 배부

명문 자율형 사립고 경희의 위상을 높이는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타이슬링을 배부하였다. 학교 마크와 자사가 기수가 표기되어 학생들에게 소속감, 애교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타이슬링은 학생들이 넥타이 대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자사고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경희인의 바람을 함께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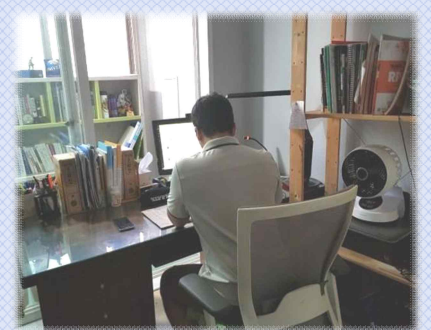


11. 팀즈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이렇게 들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가 어려워져 우리 학교는 9월 14일을 기해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MS Teams를 이용하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시작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실시간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기존의 EBS 온라인 클래스와는 다르게 실제 수업처럼 학생의 질문과 발표가 가능하고 선생님의 실시간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는 점 덕분에 학생들의 반응을 보며 실시간 소통을 통해 더 나은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우선 첫 주는 시범적으로 한 과목당 한 교시를 실시간 수업으로 대체하였고 나머지는 EBS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하지만, 실시간 수업 비중을 차차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망의 첫번째 실시간 수업은 김민정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정치와 법' 과목이었다. 선생님이 학생들의 출석을 호명하는 것으로 수업이 시작되었고, 학생들은 오랜만에 선생님과 대면해 해후를 나눌 수 있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원격수업이 어색한 듯 보였지만 금세 익숙해져 열심히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며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즉각적인 소통을 통해 모르는 것을 물어보며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선생님들의 노고와 학생들의 열정에 힘입어 실시간 수업 첫 번째 주는 우려와는 다르게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었고, 다음 주에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다. 2학년 00학생은 온라인 수강권의 재량이 학생에게 있어 자칫 해이해질 위험이 존재하지만 실시간 수업은 선생님과의 소통이 가능해 평상시의 수업과 다를 것 없이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고 xx학생은 코로나로 인해 망가졌던 생활 패턴으로 인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 필자는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이 매우 저조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렇듯 학생들의 배움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며 앞으로도 발전하는 경희고등학교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0-09-17, 20302 김도현 기자

12. 20년 장기 근속상 표창

2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근무해 오신 선생님들의 '장기 근속상'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다. 수상 선생님은 오만근 선생님과 강민철 선생님이다. 학교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모여 일구어낸 빛나는 결과임이 틀림없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경희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2020-09-22

13. 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학생들 등교일에 맞춰 학년별로 '2020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이 본교 교장실에서 진행되었다.

9.21(월)

3학년 2반 배정현 우수입학생
3학년 2반 이재경 우수입학생
3학년 2반 조민준 우수입학생
3학년 2반 한수현 우수입학생
3학년 4반 김민서 경향인재
3학년 4반 배선우 우수입학생
3학년 4반 이태민 우수입학생
3학년 5반 조민수 우수입학생
3학년 6반 김동휘 우수입학생
3학년 6반 박진우 우수입학생
3학년 7반 양성욱 우수입학생
3학년 7반 윤여준 우수입학생
3학년 7반 주형호 우수입학생
3학년 8반 이지훈 우수입학생



9.22일(화)

2학년 3반 김해성 전교학생회장 특별장학금
2학년 3반 이건희 고학인재3
2학년 7반 배주윤 형제인재
2학년 7반 이정희 고학인재3
2학년 7반 임성진 고학인재2
2학년 8반 박근형 고학인재2

9.29(화)

1학년 2반 박건엽 경희인재
1학년 2반 송시현 경희인재
1학년 2반 유희수 경희인재
1학년 2반 김강우 경희인재
1학년 4반 황상현 경희인재



14. 이번 추석엔 마음만 전하세요!

정부는 추석 연휴 직전까지는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에 적용하고, 그 이후 내달 11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3주간 총력 대응하는 모양새로 앞서 지난 5월 황금연휴, 8월 휴가철, 광복절 도심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했던 만큼 보다 철저한 대처로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추석 이후 10월 3째 주부터 우리 학교는 3학년이 매주 등교하는 현재 체제에서 1, 2학년이 매주 등교하는 체제로 변경된다. 하지만 추석 황금연휴를 집에서 얼마나 잘 보내고 오느냐에 따라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민족 대명절이지만,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올해 추석은 되도록 친척들과 온라인상에서 만나고, 서로의 마음만 충분히 주고받으며 안부를 물어야겠다. 그래야 내년 설에 모두 함께 만날 수 있다.

2020-09-28

아직 마스크 벗을 때 아니에요!!

우리 학교 사자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추석은 집에서 보내요! 어흥!**

